

라오디게아의 기별과 예수의 믿음과 늦은비

불쏘시개 친교 보은팀 집회

2016. 6. 18~19

조 명 준 장로

다음 시는 1888년 7월 31일 '리뷰 앤드 헤랄드' 지에 기재되었던 것인데, 이 해는 바로 "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것처럼 힘있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해였다. 그 엄숙했던 기별을 특징지었던 정신이 이 아름다운 시귀에 절절히 서려있다.

기다리시는 분

“볼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그대여, 저 아름다운 음성이 들리는가?

어서 일어나 자물쇠를 열고
그분의 기록하신 발걸음을 위해
길을 열어 드리지 않으려는가?

그러나
나는 곤고하고 고뇌로 병들어서
그런 나그네를 위해 일어나 문을
열지 않겠노라고 당신은 말하는구려.

그렇지만 들어보오.
그분은 진실로 위대한 의원이라 그분은 모든 통증을
제거하는 치료제를 가지고 계시다오.
그대를 긍휼히 여기시어 여기 오신 것이라오.
나의 가난하고 나약한 친구여, 잠깐만 일어나 보오.

나를 죽게 내버려 두라고요 ?

오, 사랑하는 자여,
문 밖에 계신 위대한 의원께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이여, 들어보오.

그대는 그분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오, 그분의 영혼은 그대로 인해 심히 상심되셨다오.
그분은 그대를 위해 깊고 넓은 강을 건너셨고
엄청난 위험들을 감수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다오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그분의 사랑스러운 손과 이마는 상하여
지금 피가 흘러 내리고 있다오.

아니,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요?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았어요.

오! 내가 볼때,
그분의 부드러운 영혼을 찌른 창만큼
잔인한 창은 없었다오.

오, 그대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께 임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그대에게 모두 말해 줄 수 있다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마음 속에 그분을 모셔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설득하고 있다오.
그분께서는 그분의 신성과 같은 아름다운 의복을
그대에게 입혀주실 거예요.

그분은 이 감옥의 어두움에서 그대를 건져내어
그대를 그분의 빛나는 궁전으로 옮기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그분께 의지하여 백합 향기로 가득한
그분의 동산으로 가시구려.

그녀는 이제 천천히 문 쪽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녀의 나약한 손은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연다.
그녀는 이제 그녀를 위해 눈물을 흘린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 그토록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었던
그분의 손에 입맞춘다.
그녀는 그녀의 마음이 녹기까지
그분의 발 앞에 드디어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분의 품에 안긴다.

오, 그분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던가!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인가?
그녀는 이제 치료되었고 그녀의 의복은 희게 되었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또한 그녀의 감옥은 거룩한 빛에 의하여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분 곁에 앉아서 그분의 포도즙을 마시며
그녀의 거룩한 주님과 함께 잔치를 열었다.

오, 내가 어떻게 당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밖에 세워둘 수 있었던 말인가?

그녀는 그분의 부드러운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그분은 그녀의 쓰라린 잘못을 널리 용서하시며
그녀를 그분의 아름다운 본성의 동참자로 삼으시는 동시에
심오한 자비의 언약으로 그녀를 인치시는도다.

라오디게아 기별과 예수의 믿음과 늦은비

연구 목적 :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초기, 270)

늦은비는 영혼의 성전이 순결하게 된 자들 위에 내린다. 또한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굴복된 마음을 지배하는 영의 강력한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기별을 통하여 참 굴복의 의미를 연구해 보겠다.

참된 굴복은 참된 믿음과 직결 된다.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 수단은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며 그분을 통하여 약속된 모든 것을 붙잡으며 내가 그 안에 굴복될 때 최대의 힘을 발휘한다. 이 믿음의 근본을 찾아 굴복의 법을 배운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법을 연구하여 예수 믿음을 배운다.

주요 참고 서적 : 시대의 소망 35장 “잠잠하라 고요하라”

1. 예수와 살아 있는 관계를 유지하라.

“내가 ...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죄 있는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의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의롭게 될 수 없다”(목사 367).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이다”(요 17:3).

모두가 이해해야만 하는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영생의 확실성과 보증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그 근거를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가?’ 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수

게서도 ‘보내신 자를 아는’ 것도 ‘영생’과 동등하게 여기실 만큼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 그분 자신과 하등의 차이도 없는 의의 선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오늘 그분의 선물을 받고 그분과 함께 머무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선물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위에 인용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

“죄 있는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의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의롭게 될 수 없다”(목사 367).

이것을 더욱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이 바로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예를 들자면, 흔히 ‘나는 친구가 있다’, ‘나는 아내가 있다’, ‘나는 남편이 있다’는 말을 한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단순히 그대가 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들이 있는 자’라는 말은 아들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의롭게 된다. 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킬 수 없다. 예수를 떠나서는 의는 존재할 수 없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이 성구 중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기별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금과 안약과 흰옷을 사서 입은 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있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보다는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누구와 교제 하느냐)에 기초되어 있다. 아는 것은 그와의 교제, 사귄, 대화,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끊임없는 그리스도와와의 사귄 속에서(살아있는 관계 유지) 완성되는 것이다.

2.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믿음과 사랑).

(1) 믿음이란 신뢰를 포함한다 ◻



“신앙이란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1기별 389).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교육 253).

신뢰는 무엇인가? 라오디게아 의사는 그 대답을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예수님께서서는 폭풍을 만났으나 지극히 평온하셨다. 제자들은 무서워 떨며 풍랑과 싸울 때, 그는 조용히 주무셨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다. 예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요 5:30)고 그는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소망 335, 336).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아버지께 대한 신뢰심이었다.

우리는 지금 죄의 폭풍과 싸우고 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 주님없이 내가 싸울 때에 주님은 할 일이 없어 뱃머리에서 주무신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자기 중심인 내가 싸울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것이 없나니 행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대하 20:17).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딤후 6:12).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죄와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을 예수님 중심으로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중심으로 싸울 것인가의 자아와의 투쟁이며 이것은 주님께 대하여 신뢰심을 두기 위한 **자기 중심과의 투쟁**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주님은 아무 것도 하실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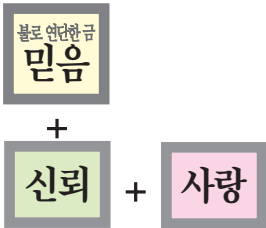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조용히 기다린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적인 현실을 체험케 하신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은 죄와의 싸움을 그치는 것이다.** 죄와의 싸움은 주님이 하시도록 신뢰하라. 이것이 예수님 중심이다. 신뢰는 그리스도와의 조용한 교제를 통하여 전진의 매 계단마다 인쳐지는 지속적인 경험이다.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다”(행적 51).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 때에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하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신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소망 336).

(2) 믿음과 사랑은 함께 일한다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 4:7-11).

예수님께 대한 꾸밈없는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속에 그분께 대한 신뢰심은 저절로 생겨난다. 상호 신뢰의 끈은 상호 사랑의 깊이와 비례된다. 라오디게아 기별자는 사랑을 가지고 오셨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나누어 주신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물이며 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로 부름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와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는 깊은 신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의심없이 믿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의심없이 신뢰하듯 그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깊은 신뢰심을 개발해 주셨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아들과 아버지의 신뢰를 다시 본다. 상호 신뢰의 끈은 사랑이라는 힘이 지탱해 주고 있다. 사단은 탕자가 육신적 물질을 통하여 아버지 곁을 떠나게 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물질의 탕진이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끊어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신뢰는 더 굳게 회복되었다.

◎ 사랑은 대화 속에서 깊어진다 (기도).

◎ 사랑은 나눔 속에서 깊어진다 (성경연구).

◎ 사랑은 동행하는 가운데서 깊어진다 (선교봉사).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곳에 라오디게아 기별의 치료제가 있다.

“음식을 함께 먹는 것보다 우정과 친교를 더 잘 나타내는 행동은 별로 없다.

이 말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험에 동참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경험에 동참하

도록 우리를 초청한다.”(성경주석, 계 3:20)

옴의 생애 속에서 배울 신뢰의 공과가 있다.

옴의 시험은 지속적이며 끈질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시험이었다.

1. 재산의 몰락
2. 자녀와 종들의 죽음
3. 육체의 고통
4. 아내의 배신
5. 친구들의 송사

하나님은 욥을 아신다. 욥의 신뢰심을 보셨다.

그는 이 시험을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쟁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조용히 주를 신뢰하는 일이라고 하여 자신을 맡겼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욥 1:21).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욥 2: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 23:10).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救贖者)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축,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욥 19:25-27).

사단이 떠난 후 시험은 끝났다. 욥은 승리한 것이다. 그는 우주적 대쟁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뢰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욥의 승리는 개인적 승리가 아니라 우주적 승리이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이 욥과 같은 우주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시험이다. 우리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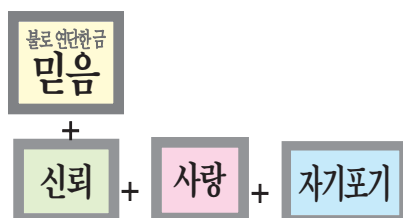
를 섬김이 물질적 축복에 따른 조건적 경외심인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발로인가? 인간의 모든 시험은 다 이와 같은 것이다.

사단과 그리스도는 개인적 원수이다. 싸움은 그들 가운데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분이 싸우시도록 잠잠히 신뢰하며 내 자신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싸우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상태일 때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3) 신뢰는 자기 포기를 포함한다 ➡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인간이 그들 스스로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준비가 된다”(RH 1902. 9. 16).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여기서 자기포기란 의미는 사단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사단을 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택하기를 등한히하면 자동적으로 사단의 편이다. 중립은 없다. 사단은 예수님을 떠난 우리와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도 싸우지 못한다. 그는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했기 때문이다. 내가 싸우는 것은 나 자신의 자아와의 싸움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내 뜻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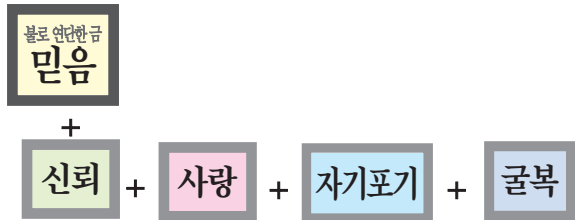
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자신을 포기하시므로 승리 하셨다.** 우리가 매일 자신을 포기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한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10).**

모세의 경우는 우리에게 큰 예증이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셨다. 그러나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외치며 자기가(자기 중심) 일하고자 하였을 때 그는 실패하였다. 만일 내가 해 보겠다고 나서면 그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이 경험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때까지 반복해서 쓴잔을 마시게 하신다. 그리고 자기 포기의 지점에 왔을 때 주님은 도와주신다.

신뢰를 통하여 나타나는 개인적 경험은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하늘에 가서 받게 될 새 이름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 경험의 이름은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이름이다.

“또 흰 돌을 줄터인데 그 돌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 2:17).

(4) 자기포기는 굴복을 포함한다 ➡



“그분께서는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신다”(1기별 110).

“그리스도께서는 무조건적인 굴복을 요구하신다”(4중언 120).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성정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영혼은 패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붙드시는 성체가 되며 당신의 권위 외의 어떤 권위라도 그

성채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하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 앞에 함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사단이 마음을 점령하여 그것을 자기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내재시키는 것이다”(소망 324).

신뢰는 자기 포기를 포함하며 자기 포기는 신뢰자 앞에 굴복을 가져온다.

“오라 우리가 곱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시 95:6).

풍랑이는 바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들만의 힘으로 노를 저었을 때 그들은 무력했고 절망과 좌절 뿐이었다.

- ◎ 자기 포기는 내가 해보겠다는 노젓기를 잠깐 중지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끝내는 것이다.
- ◎ 굴복은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며 노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1888년 기별자 존스는 셋째 천사의 기별 213 페이지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었다.

이것이 예수님 중심의 굴복이다.

“믿음(신뢰)이란 무엇인가?

그분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애정이 그분께 고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아의 굴복이다.”

자기 중심의 굴복은

어쩔 수 없는 맹목적 굴복이요

경우에 따라 편의적 굴복이요

계산에 따라 조건적 굴복이다.

이 굴복은 외형의 굴복이지 마음의 굴복이 아니다.

예수님 중심의 굴복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발로이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함에 기초한다. 이 굴복은 존경의 굴복이며 감사의 굴복이며 의지의 굴복이다. 또한 마음의 굴복이며 선택력의 굴복이다. 모두가 예수님 중심적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

(5) 굴복의 결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堅固)한 진을 파(破)하는 강력(強力)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후 10:3-6).

여기 이 말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堅固)한 진을 파(破)하는 강력(強力)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굴복될 때에 그는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인데 그것이 늦은비이며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실 것이다.

“늦은비의 소나기에 젖을 때 모든 인간의 발명품들과 인간적인 기구(機構)들이 때때로 쓸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며 인간적인 위력의 한계선은 마치 부러진 갈대처럼 되어 버리고 성령께서는 생동력 있는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확실적인 권능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아무도 자기가 사용하는 문장이 세련되게 꾸

며졌는지 혹은 문법적으로 모순이 없는지 등을 살피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통로를 따라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2기별 58).

3.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하라.”

(1) 안약은 영적 식별력으로써 굴복을 위한 최고의 원동력이다.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은 그것을 양심에다 적용시킬 때 양심을 예민하게 한다.** 이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이 치료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게 하려면 예민하게 될 필요가 있다.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덕경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같이 자신을 본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활용한다”(RH 1897. 11. 23).

“육신의 죄됨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의 빛과 그리스도의 마음의 분별력에 의해서만이 육신의 죄됨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육신의 죄됨을 많이 보면 볼수록 성령을 더욱 더 받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확실한 시금석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가 많음을 볼 때에, 우리가 많은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가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치며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롬 5:21)는 보증의 말씀을 알기 바란다”(RH 1899. 4. 18).

안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예리하게 분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죄되고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보라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죄됨을 볼 때,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라 말할 수 있게 하며,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을 더욱 신뢰하지 않게 되며 나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알게 된다. 우리의 영적 식별력이 더욱 예민해 질수록 육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 앞에 모든것을 내어 맡기는 경험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다. 이것은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의 생기있는 감화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박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점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자랑할 만한 것이 적다고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 구주의 무한하신 순결과 사랑 가운데서 존중할 만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를 사유하시는 자에게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속절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 때에 그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도움을 요구하는 느낌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게로 이끌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더욱 고상한 관찰을 하게 될 것이며 그의 형상을 더욱 완전히 반사하게 될 것이다”(정로 64, 65).

성령은 우리의 심히 짓됨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절대적 신뢰자, 능력자, 구속자, 창조자, 그리스도를 소개하신다. 그곳에 희망이 있다. 성령은 나와 그리스도 사이를 대조해 보이므로 나로 하여금 자기 포기과 그분 앞에서 굴복으로 이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당신 앞에 굴복하여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자.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 할 일로 삼으라. 또 이렇게 기도하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앞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정된 생애이다. 광희적 기분은 없을지라도 계속적 안정된 신뢰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의 소망은 그대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있다. **그대의 연약함을 그의 힘과 연합하고 그대의 어리석음을 그의 지혜와 연합하고 그대의 의지의 나약함을 그의 견인불발과 연합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자신을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라. 극기의 그리스도, 굴욕을 받으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심령의 명상할 제목이다. 그대들이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를 모방함으로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다”(정로 70, 71).

욥의 경험 속에서 다시 배울 교훈을 보면,
성령은 욥이 자기 연약성을 다 드러낸 후에 그가 바닥에서 절망할 때에 자연계를 다스리는 폭풍 가운데서 창조주를 소개한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度量)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準繩)을 그 위에 펴왔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욥 38:1-7).

욥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굴복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 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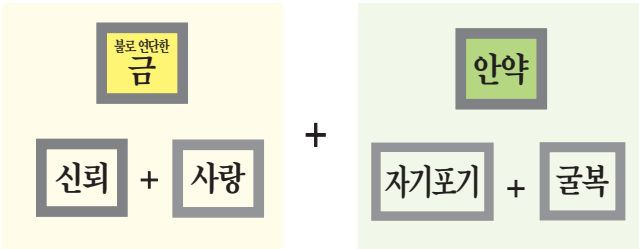
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
 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
 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서 회개하나이다”(욥 42:1-6).

우리의 굴복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는 경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경험이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
 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
 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
 는 제사장들은 낭실(廊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을 긍휼히 여기소서”(욥 2:15-17).

그분은 우리에게 안약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자기포기의 동기를 부여하
 시고, 의를 보여주심으로 능력자 앞에 굴복케 하신 후 완전한 마음의 신뢰를 주신다.
 그러므로 굴복은 주님의 선물이다.

(2) 예수님 중심의 굴복은 그분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포함한다. ►
 안약을 사면 우리의 믿음은 다음의 같이 더욱 강화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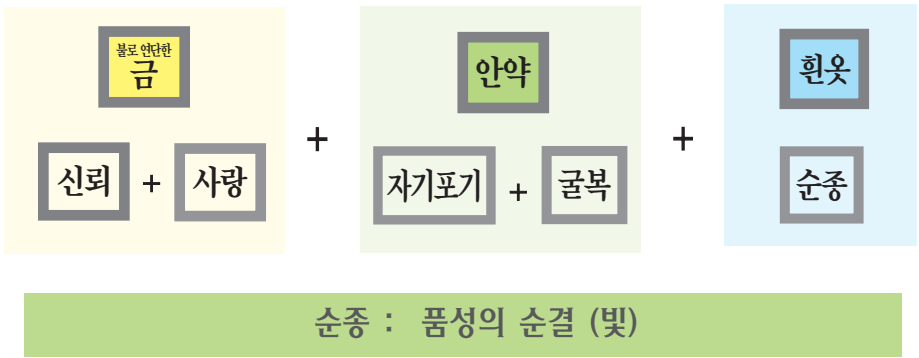
자기 중심적인 순종은 일시적인 신뢰, 맹목적 순종, 조건적 순종으로 인간을 도덕가로 만들며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한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적인 순종은 항구적 자기 포기, 의지의 굴복, 마음의 굴복, 애정의 집중,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 중심 순종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예수님을 향한 충성의 표현이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으로 생애 가운데 품성으로 고정되어 인쳐진다.

4.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며 순결한 품성이다”(4증언 88).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그분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자기포기와 굴복이 낳은 자연 발생적인 그리스도의 산 능력이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의 힘이 막을 수 없다.

“사랑으로 결합하는 때에 저들은 모든 인간의 세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런 일치가 존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된 바 되고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그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증거로

나타난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악의 작용을 물리치는 거룩한 성질의 능력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3소망 678).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그분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자기 포기과 굴복이 낳은 자연 발생적인 그리스도인의 산 생활이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아니한다.

“생업에 열중할 수 있고, 혈관에 건강한 혈액이 흐르고 있으며 매일 매일 유쾌한 기분으로 그의 직장에 나가는 건강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그의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에 대해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는다. 그의 생활에 있어서 건강과 정력은 당연한 상태로서 자기가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의 선함과 경건을 의식하지 못한다. 신앙적 원칙이 그의 생애와 행동의 동기가 되며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으며 장미덤불이 장미꽃을 피게 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다. 그의 성품이 하나님과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주 철저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는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의 감화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그리스도인적 생활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인식하게 되나 그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그의 감화가 그의 습관과 성향에 일치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빛을 간구하고 그 빛 가운데 걷기를 좋아한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다. 그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졌으나 이를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성화 13).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그분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자기 포기과 굴복이 낳은 자연 발생적인 그리스도의 산 빛이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의 힘이 이 빛을 막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장애물을 거두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요, 그것이 어둠을 뚫고 그 어둠을 사라져버리게 한다. 그대는 그대의 감화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빛을 비치지 아니 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다”(실물 420).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분 중심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막으려는 시도와 같은 것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訟事)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赤身)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 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3-39).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순종은 믿음의 참된 여부를 드러내고 믿음은 순종할 능력을 창조한다. 믿음은 사랑 안에 역사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갈 5:6)) 사랑은 신뢰를, 신뢰는 자기포기와 굴복을, 굴복은 전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순종으로 이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며 흰 옷을 입혀주신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행실은 우리의 믿음의 참된 여부를 보여 주는 것이다”(실물 312).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그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는 무화과 잎사귀의 옷이나 죄로 인하여 헐벗고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당신이 친히 주신 의의 두루마기를 보시게 된다”(실물 311).

5. 우리의 믿음(신뢰)은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앎으로 끊임없이 강화되어야 한다”(5중언 742).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화강암처럼 강화된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진리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앎으로써이다. 우리는 말씀 연구를 통하여, 그분의 광활 무변성과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리고 그분의 성실성을 알게 되고 그분과의 기도를 통하여 더 긴밀히 친근해 질 수 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성실히 전도 사업을 수행 하므로서 “내가 의뢰 하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성실히 지키실” 줄을 굳건히 믿는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때까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왜곡되고 진리를 버리고 전설로 돌아갈 것이다. 교회는 조만간 고난의 때를 보게 될 것이다.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러나 비

록 교회가 이단과 핍박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비록 불신자들과 배교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다. 주께서는 강철같이 진실하고 화강암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준비의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런 사업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4중언 594).

강철같이 진실하고 화강암같이 단단한 믿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한 믿음이다. 그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히 12:2 KJV) 이시다. 이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남은 무리는 이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하여 완성하신 믿음이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그분께 나의 의지를 모두 드릴 때 어떤 면에서는 나는 예수의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 해야 할 것은 혹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였다고 그분 만크의 의를 내가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나의 의가 된다. 이것은 믿음에 공로를 두려는 자기의 의의 발상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드는 수단이다. 우리는 그분의 믿음이 일하시도록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계 14:12) 것이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의 믿음(faith of Jesus)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였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3기별 172).

6. 흰옷은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며 이 두루마기를 어린양의 피에 빨아 순결하게 보전한 자는 늦은비를 받을 것이다.

의를 보전하며 순결한 품성을 유지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때에 그는 몸서리치는 죄의 가증함 속에서도 순결을 유지하셨다. 그것은 내가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하신 그의 믿음

즉 예수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라오디게아 기별을 통하여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한다. 그리고 그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처럼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될때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것으로 삼는 표로 늦은비 성령으로 인치실 것이다.

“참된 증인의 권면은 따뜻미지근한 자들을 전연 희망이 없는 자라고 하하지 않으신다. 아직도 그들의 상태를 고칠 기회가 있다.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에는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차 있다. 타락한 교회는 아직도 믿음과 사랑이라는 금을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흰 두루마기를 사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순결과 동기의 순결이 아직도 마음을 반만 드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가 있다. 그들은 아직도 품성의 옷을 씻을 수가 있으며, 그것은 어린양의 피로 회개할 수가 있다(리뷰 1984. 8.18).”(화잇주석, 계 3:18-21)

“우리는 믿음의 손을 뻗쳐 우리의 구속주의 손을 잡아야 한다. 우리는 늦은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킬 모든 사람 위에 내리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작은 빛들을 주어 모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때에, 그때에 모든 약속이 성취 될 것이다. ‘땅이 썩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사 61:11).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편지 151, 1897). (To James Edson and Emma White, August 29, 1897)